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도참고자료 |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2019년 4월 17일(수) 18: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| 배포일시 | 2019. 4. 17.(수) | 담당부서 | 신남방통상과<br>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배성준 과장(044-203-5710)<br>오충종 과장(044-203-5940) | 담 당 자 | 정정식 사무관(044-203-5719)<br>이디도 사무관(044-203-5942) |

# 한-필리핀간 FTA 신규 추진에 합의

## - 신남방 정책 주요 협력 대상국인 필리핀과의 교역/투자 확대 적극 추진 -

□ **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**은 4.17(수) **필리핀 마닐라**를 방문하여 **Ramon M. Lopez 통상산업부 장관**과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-필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양국간 경제통상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함

□ 또한, 금번 필리핀 방문 계기 유 본부장은 **ADB총재와 면담**을 통해,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**신남방, 신북방정책에 대해 설명**하고, **향후 에너지, 산업기술 등 분야에서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제안**하였음

< 주요 면담 개요 >

◇ 한-필 통상장관회담 : (일시) '19.4.17(수) 15:30-16:30 / (장소) 필리핀 통상산업부
◇ ADB 총재 면담 : (일시) '19.4.17(수) 17:20-18:00 / (장소) ADB 청사

**< 한-필 통상장관회담 >**

□ **(합의 내용)** 한·필 통상장관은 **한-필 FTA 체결을 추진**키로 하는데 **합의(공동선언문 별첨)하면서** 양측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오는 **11월 「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」 계기 성과도출** 목표로 협상을 신속히 추진키로 함

< 한·필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>

- 한국과 필리핀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이해를 같이함
- 양국은 「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」 계기 성과도출 목표로, 늦어도 11월 타결 노력
- 양국간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친 이후 협상 개시

□ **(논의 배경)** 정부는 그간 한-아세안 FTA 개선의 일환으로 한-필간 상품분야 추가자유화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

○ 양국은 **한-필 수교 70주년**을 맞이하여 보다 **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**에 인식을 같이하면서, **한-아세안 FTA와 별도**로 **양국간 한-필 FTA**를 **추진**하고 이를 **조속히 타결**시키기로 하는데 **합의**함

□ **(한-필 FTA의 의미)**

① **(신남방 정책 적극 추진) 필리핀**을 포함, 현재 추진중인 **인니/말련**과의 **FTA 추진**시 우리의 **ASEAN 5대 교역국*** 모두와 **양자 FTA****를 갖게 되는 바, **신남방 정책**을 더욱 **적극적으로 전개**할 수 있는 **동력**과 **제도적 기반**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

*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('18년 교역액) : ① 베트남(683억불) ② 인니(200억불) ③ 싱가폴(198억불) ④ 말련(192억불) ⑤ 필리핀(156억불)

** ASEAN 내 상위 5개 교역국 FTA 추진현황 : 베트남('15.12월 발효), 인니(금년 협상 재개), 싱가포르('06.3월 발효), 말련(공동연구 추진 중), 필리핀(추진 공식화)

② **(교역/투자 확대)** 필리핀은 **아세안 국가 중** 우리의 **다섯번째 교역국**이자, **안정적**으로 **무역수지 흑자**를 보이고 있는 **국가인 바, 한-필 FTA** 체결은 양국간 **교역/투자를 확대**하는 **주요한 계기**가 될 것으로 전망

**< 참고 : 한-필리핀 연도별 교역 현황 >**

(단위 : 백만불, ( )는 증감률 / 자료출처: 한국무역협회)

| 구 분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 출 | 7,339<br>(25.7) | 8,211<br>(11.9) | 8,783<br>(7.0) | 10,032<br>(14.2) | 8,318<br>(△17.1) | 7,278<br>(△12.5) | 10,594<br>(45.5) | 12,061<br>(13.9) |
| 수 입 | 3,571<br>(2.4) | 3,284<br>(△8.1) | 3,706<br>(12.9) | 3,331<br>(△10.1) | 3,252<br>(△2.4) | 3,229<br>(△0.7) | 3,702<br>(14.7) | 3,569<br>(△3.6) |
| 무역수지 | 3,768 | 4,927 | 5,077 | 6,701 | 5,066 | 4,049 | 6,892 | 8,492 |
| 총교역액 | 10,910 | 11,495 | 12,489 | 13,363 | 11,570 | 10,507 | 14,296 | 15,630 |

③ **(우호 증진) '19년 한-필 수교 70주년**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전쟁 파병(필→韓), 아라우 부대 파병('13, 韓→필) 등으로 이어진 양국간 **우호관계**가 한-필 FTA 추진을 통해 **더욱 공고해질 것**으로 기대

□ **(향후 계획)** 정부는 「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**경제적 타당성 평가·공청회·국회보고** 등 한-필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**착실히 진행**해나갈 계획임

**< ADB 총재 면담>**

□ 유 본부장은 나카오 타케히코(Nakao Takehiko) ADB 총재와 면담을 갖고, **에너지 및 산업·기술 분야에서의 한국과 ADB간 공동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**키로 하였음

○ **(에너지)** 양측은 한국이 개도국 에너지보급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**마이크로그리드* 구축 사업을 확대**하고, **에너지 관련 안전 및 재난방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**키로 함

* 마이크로그리드 : 특정 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·소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와 ESS(에너지저장장치)를 조합하여 구축한 소규모 전력망

○ **(산업기술)** 양측은 한국이 개도국 기술력·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**'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(TASK)' 지원 사업**을 **역내 국가들에게 확대**하고 **개도국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경험 전수 등을 위한 교육·연수를 확대**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

* TASK :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

□ 나카오 총재는 **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해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이 관심이 높다**고 언급하고, 향후 **산업부-ADB간 협력채널*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**키로 하였음

*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해 산업부 신북방통상총괄과장 - ADB 에너지부문 그룹장을 연락 담당관으로 지정 (산업부-ADB MOU, '18.12.4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 정정식 사무관(☎ 044-203-5719), 한미 FTA대책과 이디도 사무관(☎ 044-203-59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** **한-필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**

**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Trade Minister Myung-hee Yoo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ecretary of Trade and Industry Ramon M. Lopez**

17 April 2019

Today, Minister Yoo and Secretary Lopez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firmed their common understanding to pursue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.

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to put their best effort to conclude the negotiations in time for the 2019 ROK-ASEAN Commemorative Summit scheduled in November 2019.

The two countries will commence the negotiations upon the completion of required domestic procedures. /end/